

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유

7. 교인들이 왜 그렇게 살아요? - 다 아파요?! [마 9:11-13]

☞ 누군가 우리에게 주제의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“그렇습니다. 교인들은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.”라고 답해주면 됩니다. 이것은 사실이니깐요.

☞ “교인들이 왜 그렇게 살아요?”라고 묻는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.

- ① 서로 질투하고 싸우는 모습이 싫다.
- ② 교회 안에서의 행동과 밖에서의 행동이 다르다.

☞ 우리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바르게 판단하고 답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.

① 서로 질투하고 싸우는 모습이 싫다.

⇒ 이 질문을 받으면 “교인들이 질투하는 모습을 어디서 보았습니까?”라고 되물어 보십시오.

1) 교회 안에서 봤을 경우

⇒ “당신도 교회 안에 함께 있었다는 애긴데, 그 모습을 보며 뭐하고 있었나요? 그저 방관하셨나요?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 들었나요?”

2) 교회 밖에서 봤을 경우

⇒ “그들의 질투와 다툼이 교인들 사이에서만 일어날 법한 일이었나요? 아니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나요?”

② 교회 안에서의 행동과 밖에서의 행동이 다르다.

⇒ 이 질문을 받으면 두 가지를 물어보십시오.

1) “교회 안에서의 행동과 밖에서의 행동 모두를 보았나요?”

2) “그렇다면 교회 안의 행동이 문제인가요? 밖에서의 행동이 문제인가요?”

⇒ 대부분 밖의 행동이 문제라고 말합니다. 그럴 때 우리는 대화를 유리하게 이끌어 가야 합니다.

“제 생각은 다릅니다. 교회 안에서라도 행동이 바르다면 다행이지 않나요? 그런 사람은 교회로 인해 행동이 영망이 된 사람이 아니라 원래 행동이 영망인 사람입니다. 그런데 교회에서라도 바르게 행동한다면 교회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만일 그 사람이 교회도 다니지 않는다면 모든 행동이 영망이 될 테니까요.”

❖ 그들에게 이렇게 혹은 저렇게 답할 수 있지만 결국 참된 신자는 예배의 모습이 삶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입니다. 나에게 교회와 밖에서 차이가 있는 행동을 고백해 봅시다.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행동의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을지 생각하고 고민해 봅시다.

♣ 성경은 오늘 주제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 살펴봅시다. [마13:24-30]

♣ 예수님께서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, 밭에 좋은 씨를 뿌리셨지만 사탄이 몰래 (가라지)를 덧뿌려 (곡식)과 (가라지)가 함께 자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.

♣ 싹이 날 때는 가라지와 곡식이 구분되지 않아 놔두었는데, 자라고 보니 가라지가 곡식들 가운데 있는 것을 종들이 발견하게 됩니다.

♣ 종들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란 것을 의아해하며 가라지를 뽑고자 하지만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상할까 염려된다며 그들을 제지합니다.

⇒ 여기에서 ‘가라지’는 우리가 알고 있는 ‘쪽정이’와 다릅니다. 쪽정이는 안에 열매가 없지만 가라지에는 열매가 맺힙니다. 그러나 가라지의 열매는 독보리이기 때문에 먹으면 복통을 일으킵니다.

♣ 예수님께서서는 비유를 통해 세상에 가라지처럼 독보리를 맺는 악한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. 동시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아닌 (사탄)의 씨앗임을 말씀하십니다.

♣ 교회도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. 세상 속에 선한 사람과 독보리와 같은 사람이 공존하듯 교회에도 이 둘이 공존합니다.

♣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.

♣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“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?”라고 묻습니다.

♣ 이들의 물음을 들으신 예수님은 “의사가 건강한 사람이 아닌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 나도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왔다.”라며 직접 답하십니다.

♣ 그렇기에 교회에는 죄인이 넘쳐납니다. 마치 환자가 치유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오는 것처럼 교회에는 죄 사함을 받고자 하는 죄인들이 넘쳐납니다.

☞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교회는 이렇게 비유될 수 있습니다.

- * 교회 ⇒ (병원)
- * 예수님 ⇒ (병원장)
- * 목사님 ⇒ (의사)
- * 성도 ⇒ (환자)

☞ 더군다나 아픈 사람이라면,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병원에 들어갈 수 있듯이 교회도 변화되고자 하는 사람,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. 교회라는 병원 문 앞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.

“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.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”

☞ 교회에는 치유 받은 사람, 치유되고 있는 사람, 치유되지 않은 사람 등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늘 시끄럽습니다.

☞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봐주거나 사랑해줄 수 없습니다. 아파서 울부짖는 사람은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럴 수 없습니다.

☞ 반면 질병이 치유된 사람은 (은혜)가 넘칩니다. 병든 사람을 돌보고 주변을 섬깁니다. 어떤 상황에서도 (감사)하며 찬양합니다.

❖ 나도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환자입니다. 다음의 질문을 보고 나누어 봅시다.

- ① 치유되는 과정 중에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 주변을 돌보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줬던 경험이 있나?
- ② 교회를 통해 전에 나를 괴롭게 했던 병으로부터 치유된 경험이 있나?
- ③ 지금 내가 낫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병이 있나?

ex) 화를 참지 못하는 병, 잘난 척 하는 병, 자기문제에 집착하는 병, 거짓말병, 비판병, 낙심병, 절망병, 고집불통병, 나는 잘 모르겠다 병, 변덕병, 정죄하는 병, 탐욕병 등등

☞ 마지막으로 성도에 관한 명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.

교회에는 녹슨 교인이 많은데 그것을 닦지 않고 있는 이는 더 많다.

- 벤스 하브너(부흥운동가, 20세가 가장 많이 인용된 설교자)

⇒ 그는 녹슨 것을 닦지 않는 이유는 본인이 녹슬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녹슨 것을 닦아내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. 이 부끄러움과 고통을 감내할 때 비로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.

교회에는 거듭난 사람들보다는 명목상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더 많다.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 성도들은 다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.

- 리차드 백스터(영국 청교도지도자, 시인이며 신학자이며 논쟁가)

⇒ 리차드 백스터는 입술로 신앙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된 신앙인을 조롱하는 현상이 교회에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. 그리고 세상은 그 입술로 신앙하는 사람들을 보며 교회와 성도를 조롱합니다.

우리는 비록 죄는 많아도 성도라고 불린다. 이 사실은 밀밭에서 많은 잡초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 밭은 잡초밭이라고 부르지 않고 밀밭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.

- 폴 베인(영국 청교도, 유명 에베소서 강해 설교자)

⇒ 폴 베인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허물이 많아도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(은총) 때문임을 고백합니다.

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기준도, 능력도 없다. 그들은 성도들의 허물만 볼 뿐이지 은총은 보지 못한다. 왕자는 왕의 영광을 가슴 속에 깊이 담아 두고 있는 법이다.

- 존 오웬(잉글랜드의 비국교도 교회지도자, 신학자이며 옥스포드 대학교의 학장)

⇒ 존 오웬의 말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 (허물)만 볼 뿐이지 안에서 역사되는 하나님의 (은총)은 보지 못합니다. 안으로 들어왔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음을 말합니다.

✂ 오늘 주제의 질문에 답해봅시다.

“교인들이 왜 그렇게 살아요? 다 아파요?”

⇒ “네 그렇습니다. 교회에는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. 그러나 적어도 이들은 본인이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. 그리고 치유 받고 변화되길 바라는 사람들입니다.”